

안 그래픽스
디자인·인쇄·싸인
모든 종류의 인쇄물 및 싸인 제작
안희탁 스테파노
404.717.9897

SB 건축 & 철공
House 내부수리 일체
플러밍, 텍크, 전기공사
용접, 철구조물 수리 제작
678-599-0200
방성호 크레센시오

골든스텝 꽃집
결혼식꽃 전문
각종 행사 및 기념일
서재옥(토마스), 서애영(데레사)
770-992-1797

회계법인태평양 (구 시원회계법인)
정시욱 루뽀 CPA
770-817-9600
3175 Satellite Blvd., Suite 325, Duluth, GA 30096

오즈냉동
에어콘, 히팅, 냉동
원동훈(유스티노)
770-910-5656

리버밴드 오토
RIVERBEND Tire & Auto Service, Inc.
변대건 안드레아 404.663.7984
3322 Peachtree Ind. Blvd. Duluth, GA 30096 Office 770.623.5940

KELLER WILLIAMS
오현정 부동산
유리안나 Juliana Oh
Associate Broker
678-908-4945

아세아 여행사
미셸 박
404-819-9227
(카톡, 텍스트)
michellehpark@hotmail.co

리버밴드 오토
RIVERBEND Tire & Auto Service, Inc.
변대건 안드레아 404.663.7984
3322 Peachtree Ind. Blvd. Duluth, GA 30096 Office 770.623.5940

SO GOOD (파티드레스, 웨딩드레스 전문점)
www.sogoodbridal.com
470-545-2640
www.sogoodbb.com
678-580-2181
3480 Steve Reynolds Blvd. Duluth, GA 30096

FARMERS INSURANCE
자동차/집/사업체/생명
WC/메디케어/IRA/연금

공항서비스·대리운전·관광안내·회사어카운트
올림픽 콜리무진
T. 770-696-7517 T. 678-699-5462
T. 010-5906-8945(한국에서)

770-614-1738
성물점 GIFTS
GOLD·CROSSES·REPAIRS
·십자가, 선상 ·금, 은, 주문제작
·성화, 묵주, 책 ·신발수선
Suwanee Wal-mart 내 ·티-셔츠 프린팅
3255 Lawrenceville Suwanee Rd. #L

로렌 배 보험
(모니카)
470-282-1654
스와니 아씨 상가

VINEYARD REALTY
"부동산 과 용자를 한국에서"
조셉김 678-361-6230
GMC용자 켈리김 770-634-5646

770-614-1738
성물점 GIFTS
GOLD·CROSSES·REPAIRS
·십자가, 선상 ·금, 은, 주문제작
·성화, 묵주, 책 ·신발수선
Suwanee Wal-mart 내 ·티-셔츠 프린팅
3255 Lawrenceville Suwanee Rd. #L

배용자(루시아) 보험
생명보험
건강보험
은퇴연금
장기간호보험
뮤추얼 펀드
678-665-5400

조앤 리 부동산
주택·상가·렌트·관리
678.770.1136
E-mail: Realtorjoanne@gmail.com
Broker Joann Lee (아네스)

오약국
470.223.4775
오민환 약학박사 존스크릭 H-Mart 건너편,
(파비아노) Bank of America 뒷건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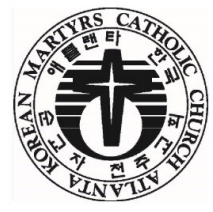
본당 성물방 시간:
매주 (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예약 주문/상담가능)

미소 치과
770-814-7533
4195 Pleasant Hill Rd, Ste#200
Duluth, GA 30096
남상우(시몬), 남수진(세실리아)

강형기 카이로프랙틱
교통사고 전문
강형기 (사도요한)
770-495-0014
678-468-0985
3585 Peachtree Industrial Blvd #102 Duluth, GA 30096

박지연 부동산
내집 마련, 한결같은 마음으로
살피아가 함께 하겠습니다.
770-687-0750
office: 770-557-1867
Bestrealtor4989@gmail.com
King Star Realty

이강연 CPA
미카엘
770-279-2770
info@mlcpa.com



애틀랜타 한국 순교자 천주교회

Korean Martyrs Catholic Church of Atlanta

주소: 6003 Buford Hwy. N.E., Doraville, GA 30340 | 홈페이지: <http://www.kmccga.org>
E-mail: kmccga.office@gmail.com | Tel 770.455.1380 Toll free 888.222.9218 | Fax 770.455.4262

제1969호 | 2018년 12월 16일 | 대림 제3주일 (자선 주일) | 발행인: 이재욱 요한 신부

- † 미사 시간
일: 오전 8시 30분
오전 10시 30분
오후 12시 15분(영어)
월: 없음
화: 정오 12시
수: 오후 7시 30분
오후 8시 (구역미사)
목: 오후 7시 30분
금: 정오 12시
토: 오후 7시 (특전미사)

† 고백 성사
미사 시작 30분 전

† 혼인 성사
6개월 전까지 사무실로 신청

† 유아 세례 / 병자 성사
사무실로 연락

† 사무실 시간
일: 오전 7:30-오후 3:00
월: 휴무
화 ~ 금: 오전 10시-오후 6시
토: 오전 10시-오후 6시

† 본당신부
이재욱 요한
Johan Chae-uk Lee, S.J.
lcujhnsj@hanmail.net

† 보좌신부
김형철 시메온
Simeon Hyung Chul Kim, S.J.
grisanchung@daum.net

† 사목회장
왕일모 미카엘
Michael Il Mo Wang
352-359-2151
kmccga.chair@gmail.com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루카 3,10-18〉

성 가 입당: 88 봉헌: 210, 511 성체: 154, 167 파견: 91

제 1 독서 스바니아 3,14-18 <주님께서 너 때문에 환성을 울리며 기뻐하시리라.>

화 답 송 ◎ 기뻐하며 외쳐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너희 가운데 계신 분은 위대하시다.

제 2 독서 필리피 4,4-7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 알렐루야.

복 음 루카 3,10-18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영성체송 마음이 불안한 이들에게 말하여라. 힘을 내어라,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 하느님이 오시어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기도 부탁드립니다!

병 중에 계신 분들

- 조남경(필립)
- 김계환(안토니오)
- 민병숙(라파엘라)
- 조경희(글라라)
- 이창욱(크리스티나)
- 김송옥(데레사)
- 채중현(아오싱딩)
- 이금숙(세실리아)
- 박정자(데레사)
- 박재봉(베드로)
- 김미영(인덕마리아)

특별한 지향을 위하여

2019년 부활절 영세를 위한
성인 예비신자들을 위해

전례분과

김상순 770-820-9132

구역분과

남현석 770-827-9987

성모회

서차영 770-723-0380

대건 한국학교

노시현 678-677-3515

예비신자 교리반

이연숙 404-293-9319

선교분과

레지오 마리아
박순기 678-793-5881

성령기도회
김성애 678-779-1387

울뜨레아
조경희 404-610-8086

M.E.
손영덕 678-896-1837

C.L.C.
김옥경 770-912-8282

92. 제2차 세계대전과 교회

세계 교회사 100대 사건

— 나치 “교회는 위험한 저항세력”
정교조약 불구 공공연한 탄압 계속
일부 “히틀러 정권에 협력” 주장도



← 히틀러는 정교조약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탄압했다.

예수회 소속의 역사학자 찰스 R. 갤러거는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예수회 잡지 「아메리카」 9월 1일자에서 교황 비오 12세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혐의를 씻어줄 또 하나의 사실을 보고했다. 이 보고서에서 교황청 국무원장으로 후에 비오 12세가 된 에우제니오 파첼리 추기경이 고위급 외교관들과의 모임에서 나치와 히틀러에 대해 이교도이며 반종교적인 인물이라고 신랄한 비난을 퍼부었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파첼리 추기경이 히틀러 정권에 대해 전혀 어떠한 정치적 타협의 여

지도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비오 12세는 일부 사가와 유다교 지도자들로부터 나치 대학살에 대한 적극적인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고 심지어는 나치 독일에 협력했다는 비난과 혐의를 받아왔다. 이러한 혐의는 사실 매우 오래된 것이다. 최근 들어 교황청이 비오 12세의 시복 문제를 놓고 검토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유다교 학자들은 격렬한 반대 의사를 표시해왔다. 교황청은 지난해 2월 성명서를 통해 바티칸 비밀문서고의 제2차 세계대전 관련 문서들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문서들은 교황청과 독일과의 관계 및 비오 12세가 전쟁 기간 중 유다인들을 구출하기 위해 시도했던 노력들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담고 있다. 비오 12세에 대한 혐의는 역사상 가장 참혹한 전쟁이고 인간의 상상력을 뛰어넘는 잔혹한 시대에 교회가 과연 무엇을 했고, 할 수 있었는가 하는 문제와 연결된다.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얼마 전인 1939년 2월 10일 전임 교황 비오 11세가 타계했다. 추기경들은 오랫동안 교황청에서 근무해온 법률가 집안 출신의 에우제니오 파첼리 추기경을 교황으로 선출했다. 추기경들은 그 외에는 결코 무서운 곤궁의 시대를 거슬러 베드로의 배를 조종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이미 교황청 국무원장으로서 비오 11세 교황 밑에서 1930년 이래 교황청의 정치적 진로를 결정지었고 히틀러와의 관계에서도 교황청의 입장을 주도했었다. 특히 비오 11세의 정교 조약 정책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1933년 6월에 오스트리아, 7월에 독일과 정교 조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독일과 맺은 정교 조약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탄압을 받기 시작했다. 1934년까지는 히틀러 자신이 표면에 나서지는 않고 「위장된 조치」들로 가톨릭 지도자들을 살해하기도 했다. 이후 공공연한 탄압이 시작됐다. 모든 영역에서 교회 생활이 제한됐고 성직자와 평신도들이 체포됐다. 1938년 11월 유다인에 대한 최초의 조직적인 대학살이 실시됐다. 전쟁 발발 후에도 교회에 대한 탄압은 이어졌다. 정복된 폴란드에서는 교회가 근절됐고 유다인에 대한 성멸 계획과 함께 그리스도교의 청산을 위한 잔혹한 탄압이 진행됐다.

그러면 교회는 무엇을 했던가. 나치 독일의 범죄 행위가 지닌 잔혹함과 방대함에 비추어볼 때 교회의 저항은 불충분하게 보일지도 모른다. 실제로 교회는 많은 이들에게 비난을 받아왔다. 하지만 적어도 그리스도교는 당대의 모든 사람들과 수난을 함께 했다는 것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 교회의 저항은 끈질기고 격렬했다. 교회는 나치 정부에 의해 가장 위험스러운 적으로 인식됐던 유일한 저항 세력이었다.

비오 12세는 당연히, 전쟁을 막기 위해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히틀러와의 외교 교섭이 1939년 5월초 좌절되고 8월 독일과 소비에트 연방 사이에 폴란드가 양분되자 교황은 『평화와 함께 잃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전쟁과 함께 모든 것을 잃는다』고 마지막으로 평화를 호소했다. 교황은 전쟁 기간 내내 이러한 입장을 고수했지만 공식적으로는 침묵을 지켰다. 사실 히틀러 전쟁의 윤리성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교회 내적으로 필요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모두가, 특히 독일의 주교와 신자들 모두 이에 대해 명백히 알고 있었다. 대외적으로는 교황의 이러한 입장 표명은 정치적으로 이용되는데 불과했다.

그리하여 비오 12세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켰다. 하지만 그는 인도주의와 평화, 그리스도교적 사랑으로 돌아가도록 모든 이들에게 더욱 강력하게 호소했다. →

김옥경 부동산
에밀리 김
Associate Broker
(C) 770-912-8282
(O) 404-843-2500

리 장례식장 (귀넷)
Lee's Funeral Home & Crematory
이국자: 770-401-7616
귀넷: 770-622-2525

LAW OFFICE OF
SE HO MOON, P.C.
YOUR IMMIGRATION NAVIGATOR
문세호 (시메온) 변호사
이민, 파산, 세금, 채무관계, 가정법
770-755-5388 Sehmoon@yahoo.com

음악과 테니스 특수
한 장소에서!
김영혜 (가타리나)

자체 테니스 코트 6개를 갖춘
전문 테니스 학원 &
33년 전통과 실력의
AMA 음악학원 2호점

1호점 Suwanee
2호점 Sugarhill
770-862-4223

이크리스티나 보험 금융
678-665-3882
은퇴/연금/교육/생명보험

정승옥 변호사
(미카엘)
이민·입양·클로징·상법·유언
무료상담 전화 770.495.9994

확실한 카이로프랙틱
더조은 척추

박찬규 (레오)
운동상해 (골프, 테니스 전문) 및 교통사고
678-473-0552
6630 McGinnis Ferry Road, Suite B, Johns Creek, GA 30097

대건한국학교 2018-2019학년도 가을학기 등록안내

- 모집 대상: Pre-K(만 4세) - 고등학생, 성인
- 수업 기간: 2018년 8월11일~12월8일 (16주간)
- 수업 시간: 매주 토요일 09:15-12:30
- 수업 내용: 한국어, 한국문화, 한국어사
- 특활 과목: 난타(북, 장고), 서예/한국화, 미술, 동화/연극, 태권도, 가베(유아반)
- 주요교내행사: 추석/설날잔치, 가을운동회, 낱말/받아쓰기/동요/동화/발표력대회
- 등록일자: 4/21~5/5 (추가등록: 5/12~8/11)
- 등록금: 한자녀 \$210/ 두자녀 \$370/ 세자녀 \$520 (교재, 간식, 교지\$10포함)
- 등록장소: 애틀랜타 한국순교자 천주교회 (교무실 또는 본당 사무실)

Tel 770-455-1380 / Fax 770-455-4262 / Email KMCCGA.DaegonKoreanSchool@gmail.com
*Payable to: KMCC Daegon Korean School

등록 장소 애틀랜타 한국순교자 천주교회 연락처 678-677-3515 노시현(네오미시아)
6003 Buford Hwy, NE, Doraville, GA 30340 우편접수가능/등록원서다운 (http://kmccga.com/xe/office)

*청소년기금마련을 위한 Amazon 스마일 펀드레이징 캠페인 안내
아마존 스마일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 구입금액의 0.5%를 아마존이 본당에 도네이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용방법
1). smile.amazon.com 을 이용하여 아마존스마일로 들어갑니다.
2). Choose Charities 에서 Korean Martyrs Catholic Church of Atlanta 를 지정합니다.
(주의: 비슷한 이름의 성당이 있으니, Doraville, GA에 있는 성당을 지정하셔야 합니다.)
3). 계속 smile.amazon.com 을 이용해 shopping 합니다.

비즈니스 익스펜스를 아마존 스마일과 연계할 경우, 본당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문의: 나창섭 (678-357-6381)/박형근 (770-861-2553)

명품 중식 레스토랑
만천홍

매주 월요일은 쉽니다
T. 770.454.5640
5953 Buford Hwy, Suite#105 Doraville, GA 30340

RADFORD & KEEBAUGH
www.DecaturLegal.com
근로법·노동법 (Employment Discrimination, FMLA, Minimum Wage, Tip Credit, Overtime)
/헌법소송/기타 민사소송 전문
이승은 제르투르다 (Gertrude) 변호사
T: (678) 271-0304
Email: april@decaturlegal.com
315 W. Ponce de Leon Ave. Suite 1080 Decatur, Georgia 30030

우리 공동체의 이모저모



<대림 특강> →

12월 9일(일) 오후 1시 30분부터 대성전에서 '하느님 마음'이라는 주제로 한민(토마스) 신부님께서 대림 특강을 해주셨습니다.



<성서 그룹공부 봉사자> →

12월 9일(일) 오후 12시 30분부터 110호실에서 월례모임이 있었습니다.



<레지오 마리아> →

12월 9일(일) 오후 12시 30분 소성당에서 꾸리아 월례회의 있었습니다.



← <주일학교 판공성사>



12월 9일(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중고등부 판공성사가 신부님 방에서 있었습니다.

← <주일학교 세례/견진반 모집>



내년 5월 19일 예정인 세례 및 견진 교리반 신청을 친교실에서 받고 있습니다.

미사 안내

- † 성탄 전야 미사
12월 24일(월) 오후 8시
- † 성탄 대축일 미사
12월 25일(화) 오전 10시 30분
(영어: 오전 10시 30분, 소성당)
- † 송년 미사
12월 30일(일) 오전 10시 30분
(영어: 오전 10시 30분, 소성당)
- † 신년 및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미사
1월 1일(화) 오전 10시 30분



<2019년 부활 영세 교리반> ↑

매 주일 오후 12시 30분부터 112호실에서 교리반 수업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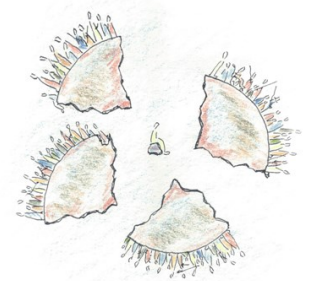


나뉜 세상, 나뉜 성체 <루카 3,10-18>

배영길 베드로 신부

당신께서 세상에 오시어
당신의 몸을 나눠 주신
이유가 있었군요.

이 세상,
하나 되라고,
좋았던 모습을 되찾으라고,
그래서 오셨군요.



오늘 복음 산책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루카 3,10-18>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루카 3,10) 참 좋은 질문입니다. 보통은 이런 물음 없이 그저 하던 대로 하거나, 내키는 대로, 혹은 남들 하는 대로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별 문제없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물음이 떠올랐다면 이제는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살지 않겠다는 진지한 회심에서 비롯된 것이라 짐작됩니다. 생명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외치던 소리가 새 삶이라는 열매로 나타난 것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물음에는 진지한 대답이 어울립니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고 (필리 4,5), 주님께서 우리 한 가운데 계시니 (스바 3,15) 그에 걸맞는 삶으로 인도하는 세례자 요한의 대답은 당연한 것처럼 생각됩니다.

다만, '아직 아닌 것 같은데', '나만 손해 보는 것 같은데,' '어휴... 어떻게 그렇게 살아..' 하며 억지로 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기대하는 삶 (요한 2,15 참조)이 그러한 삶을 더욱 재촉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진짜 기다리고 있는지, 그 합당한 열매 (루카 3,8)를 맺고자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기다림이 바로 하느님의 약속에서 비롯되었다는

생각으로 이어졌습니다. 하느님의 약속이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한 구원으로 나타났으니 이제 내가 그 약속에 걸 맞는 삶을 살라고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침 오늘은 자선주일이자 기뻐하라 (Gaudete) 주일입니다. 성탄을 준비하며, 기다림, 자선행위, 기뻐하는 얼굴이나 표정 같은 것들은 흉내 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열매인 새로운 삶은 흉내 낼 수 없습니다. 그건 제 안에서 자라나야 할 테니까요.

성찰

주님께서 오신다는데 어떻게 주님과
과의 만남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오신 주님을 이웃과는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 주교들은 정부에 대해 항의서와 사목서한을 통해 반대했다. 이미 1933년 시작된 항의는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격렬해졌다. 쾰른의 숄트 추기경은 1934년 2월 히틀러를 직접 방문해 항의한 뒤 이렇게 말했다. 「히틀러는 무서운 인간이다. 우리는 그로부터 더 무서운 일을 겪게 될 것이다」

정교 조약 체결 후 주교들은 정부의 조약 사항 위배를 비난했다. 1937년 비오 11세 교황은 회칙 「미트 브레넨데르 조르게」(Mit brennen der Sorge)를 발표해 독일의 인종 차별주의와 나치즘을 비난했다. 그 회칙은 사실상 파첼리 추기경이 작성한 것이다. 대단히 구체적이고 예리한 표현으로 작성된 이 회칙은 히틀러의 정치 체제에 대한 최대의 고발이었다. 독일 교회 역시 침묵하고 있지는 않았다. 윈스터의 주교 폰 갈런의 용감한 설교는 1941년 전 독일을, 아니 전세계를 한 바퀴 돌았다. 나치 지도자 마르틴 보르만은 그를 교살하려 했지만 사람들의 눈 때문에 전쟁 동안은 그를 해칠 수 없었다.

당시 역사 속에서 교회는, 주교들은 유대인 박해를 비롯한 인간성 말살의 행위들을 혹은 묵인하고, 혹은 반대해 수용 소로 끌려가거나 처형됐다. 그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그것은 오늘의 잣대로만, 혹은 어쩔 수 없는 역사적 상황이었다는 변명의 어느 한 쪽으로만 예단할 수 없는, 비극적인 역사의 한 장이다.

[가톨릭 신문, 박영호 기자]

2019년 부활 견진성사 교리반 모집

기간: 2019년 2월 10일 ~ 4월 7일

시간: 오후 12:30~2:00

수업 장소: 112호실

성사일: 2019년 4월 21일 부활 대축일

문의 및 접수: 성당 사무실

우리들의 정성 (2018년 12월 9일)

본당 미사참례 인원		총 658 명	
특전 미사	92명	오전 8시 30분	102명
오전 10시 30분	322명	종교학교 미사	61명
성물방	\$ 268.00	매일미사	\$ 220.00
교무금	\$ 7,125.00	주일 헌금	\$ 4,480.00

교무금 봉헌 하신 분 (2018년 12월 9일)

곽성숙 (12)	양로렌스 (7~12)	지혜정 (12)
권진 (12)	양희영 (12)	한규향 (12)
김덕중 (12)	오상수 (1)	한성인 (12)
김면기 (12)	오영택 (11~12)	허석호 (11~12)
김선민 (12)	우청미 (12)	현대섭 (12)
김성강 (12)	유성복 (12)	
김세경 (11)	유창성 (12)	
김영철 (12)	윤성진 (12)	
김원봉 (12)	은전 (7~12)	
김윤재 (12)	이건수 (12)	
남명애 (12)	이광자 (12)	
노종업 (12)	이근영 (10)	
박양삼 (11~12)	이성철 (12)	
박영권 (12)	이순섭 (11)	
박재현 (12)	이준식 (12)	
박정옥 (10~12)	임근범 (1~12)	
박해영 (12)	장근철 (10~12)	
박화자 (11)	정창래 (12)	
서동민 (12)	정희웅 (12)	
서상희 (12)	조성환 (1~12)	
서재욱 (12)	주인국 (11~12)	

【 본당 알림 】

- ◆ 교무금을 내실 때 월 표시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 ◆ 장례 미사 및 연도 요청은 연령회에 필히 연락하길 바랍니다. (이수진 브렌다노: 404-933-8233)
- ◆ 혼인성사를 요청하는 경우 6개월 전에 필히 사무실로 신청하길 바랍니다. (사무실: 770-455-1380)

전례 봉사자

날짜	해설	독서	복사
12/15 (토) 오후 7:00	이재돈	김주환 곽예원	박진효 장재은
12/16 (일) 오전 8:30	남수진	김춘자 이영숙	송한솔 전지우
12/16 (일) 오전 10:30	이진화	서재욱 서해경	신준완 오유 성리디아 진취미나
12/16 (일) 오후 12:15	Deborah Seong	Thomas Lee Jemy Choi	김다혜 김태훈
12/22 (토) 오후 8:00	이지연	이봉근 송보경	조영훈 이하윤
12/23 (일) 오전 8:30	강창미	이강연 이숙자	박경흠 안상우
12/23 (일) 오전 10:30	박줄리	이국진 이정란	신준호 권혜민 박인아
12/23 (일) 오후 12:15	Daniel Kim	Greg Park Jaeyun Lee	장재혁 박시현
12/24 (월) 오후 8:00	이경환	서재욱 서해경	신준완 이유나 김다혜 소현교외
12/25 (화) 오전 10:30	김영보	전홍 최인경	오다운 조영훈 송한솔외
12/25 (화) 오후 12:30	Shannon Kang	Mary Seol Deborah Seong	이준하 성리디아

전례 담당 구역

12/16 (일)	대림 제3주일	Alpharetta-2
12/23 (일)	대림 제4주일	Dunwoody
12/30 (일)	예수마리아요셉 성가정 축일	Johns Creek-2
1/6 (일)	주님 현 대축일	Marietta나눔

점심 봉사 및 주차 봉사

일	자	점심 봉사	주차 봉사
12월	16일	CLC	CLC
12월	23일	구역분과	성령기도회
12월	30일	사목회	ME
1월	6일	Marietta나눔	꾸리아

구역 미사

◆ 2018년 12월과 2019년 1월에는 구역미사가 없습니다.

성탄, 송년, 신년 미사 안내

- ◆ **성탄 전야 미사**
12월 24일 (월): 오후 8시
- ◆ **성탄 대축일 미사**
12월 25일 (화): 오전 10시 30분
영어 미사: 오전 10시 30분 (소성당)
▶ 12월 26일 (수) 성당 휴무합니다.
- ◆ **송년 미사**
12월 30일 (일) 오전 10시 30분
교중미사를 송년 미사로 봉헌합니다.
영어 미사: 오전 10시 30분 (소성당)
***송년잔치**: 오후 1시~3시, 친교실
-점심식사는 친교실에서 구역별로 준비 (밥, 국, 김치는 본당에서 제공)
-식사 후 각 단체에서 준비한 음악회가 있습니다.
***"특별" 어린이 송년회**: 영어 미사 후 소성당에서 풍선댄, DJ 댄스, 스포츠등 이벤트가 있습니다. (점심 무료 제공)
- ◆ **신년 및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미사**
1월 1일 (화): 오전 10시 30분
▶ 1월 2일 (수) 성당 휴무합니다.

대림 판공 성사 안내

일시: 12월 1일 (토)부터 평일 및 주일 미사 전 20분부터 판공 성사 실시
▶ 12월 중 판공 성사는 모두 허용

◆ **합동 고해 성사**
12월 21일 (금): 성 김대건 성당
오후 7시~오후 9시
-신부님들께서 고해성사를 주심.

행사 안내 안내

- ◆ **아기 예수님 봉헌 묵주 기도**
목적: 구세주이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쁨과 감사로 맞이하기 위함.
기도 제출 마감: 12월 16일까지 성당 입구에 마련된 봉헌함에 개인별로 넣어 주시면 성탄 전야미사의 구유 예물로 봉헌함.
문의: 이영숙 (770-625-0787)

모집 안내

- ◆ **2019년 부활 견진 성사**
내년 부활절에 함께 있을 견진성사를 위한 교리가 2019년 2월 10일부터 4월 7일까지 8주 동안 112호실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접수**: 사무실
문의: 이연숙 (404-293-9319)

피정 안내

- ◆ **제 10차 미 동남부 성령쇄신 봉사자 세미나**
일시: 1월 27일(일)~1월 30일(수)
장소: Ignatius Retreat Center
지도: 김영수 (스테파노) 신부님, 이상현 (베드로) 신부님 및 봉사자들
참가비: \$400 (Pay to: KCCRSC-SE)
▶ 각 공동체 기도회를 통해 마감일 이전 등록시 봉사회에서 \$70 지원함.
준비물: 성경, 필기도구, 세면도구...
신청마감: 1월 15일 (선착순 40명)
문의: 이영숙 (770-625-0787)
주최: 미 동남부 성령 쇄신 봉사자 협의회
- ◆ **이나시오 영성 침묵 피정**
지도: 이재욱 요한 본당 신부님
주제: "하느님 자비의 여정"
일시: 2월 13일~17일 (4박5일)
장소: Conyers 수도원 (Monastery of the Holy Spirit)
참가비: \$ 400
문의: 김옥경 (770-912-8282)

정기 모임

- ◆ **M.E 송년 모임**: 12월 16일 (일) 오후 12시 30분, 소성당
문의: 손영덕 (678-896-1837)
- ◆ **빛과 소금 모임**: 12월 16 (일) 오후 12시 15분, 유아방 (111호)
문의: 김영배 (404-723-0110)
- ◆ **Marietta 자비반 모임**: 12월 16일 (일) 오후 12시 30분, 대건도서관
문의: 김영환 (770-594-3234)
- ◆ **전례분과 모임**: 12월 16일 (일) 오후 12시 30분, 108호
문의: 김상순 (770-820-9132)

- ◆ **등대회 송년 모임**: 12월 23일 (일) 오후 5시, 청기와 식당
문의: 임창현 (678-698-0515)
- ◆ **요셉회 모임**: 12월 모임은 없습니다.
문의: 황재숙 (862-222-0548)

교구 및 기타 소식 안내

- ◆ 교구 2차 헌금 (Catholic Charities) 이 12월 25일 (화)에 있습니다.
- ◆ 이번 주일 친교실에서 본당의 2019년 Calendar를 각 세대별로 한부씩 배부해 드립니다.
- ◆ **2019년 매일 미사책 신청 안내**
주일 친교실에서 받고있으니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 구독료: \$40
문의: 김계환 (404-451-3782)
- ◆ 금년 한해 동안 제대꽃을 봉헌해 주신 모든 교우분들께 감사드리며 내년에도 꽃봉헌을 계속 부탁드립니다.
문의: 김유니스 (770-500-7007)

◆ 2018년 주보 광고비를 사무실로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당 학교 안내

- ◆ **주일 학교 안내**
*중.고등부 세례/견진성사 교리반 모집
성사 예정일: 2019년 5월 19일
세례성사 대상자: 6학년 이상
견진성사 대상자: 10학년 이상
등록비: \$40 (주일 친교실에서 접수)
문의: 남수진 (770-846-4406)
- ***주일 학교 성탄제**
일시: 12월 23일 (일), 오후 4시, 친교실
- ◆ **토요 대건 한국학교**
문의: 노시현 (678-677-3515)

감사합니다

*지난 12월 11일 故 박재강(그레고리오)님의 연도 및 장례미사에 참석해 주신 모든 교우분들께 감사드립니다.